

- 주요 뉴스: 미국 주요 지역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지속할 필요
 - 미국 2/4분기 성장률(수정치), 소비지출 상향 조정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 완화
 - ECB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가중
 - 중국 정부,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 제공을 확대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파월 의장 연설 앞두고 2/4분기 성장률(수정치) 개선 등이 영향
 - 주가 상승[+1.4%],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주 강세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부 통화긴축 속도 조절 전망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1%,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가격 하락에 따른 자가매수 유입 등이 배경
독일은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으로 5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34.5원, -0.7원) 포함, 한국 CDS 포함

		8/25일	8/24일	전일대비			8/25일	8/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99.1	4,140.8	1.41%	국채 금리 10y	미국	3.03%	3.10%	-8bp
	유럽	433.36	432.05	0.30%		독일	1.32%	1.37%	-5bp
	중국	3,246.2	3,215.2	0.97%	CDS 5y	한국	33bp	33bp	0bp
	일본	28,479	28,313	0.58%		중국	66p	70bp	-4bp
	한국	2,477.3	2,447.5	1.22%	위험 지표	EMBI+	-	414	-
환율	달러지수	108.42	108.68	-0.24%		VIX	21.78	22.82	-4.56%
	유로화	0.9975	0.9967	0.08%		WTI유	92.52	94.89	-2.50%
	엔화	136.49	137.12	0.46%	원자재	구리	369.9	364.4	1.51%
	위안화	6.8492	6.8595	0.15%		금	1,758.7	1,751.2	0.43%
	원화	1,335.2	1,342.1	0.5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요 지역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지속할 필요

- 시카고 연은의 볼라드 총재는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하며 선제적으로 연말에 연방기금금리를 3.75~4.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 또한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매우 진지하다는 사실을 시장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설명
- 내년의 경우 경제 변동이 확대될 수 있어 금리전망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물가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경고
- 캔자스시티 연은 조지 총재는 연준의 통화긴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가계 및 기업 지출이 감소해도, 통화긴축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기대하는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방기금금리가 4% 수준까지 올라야 하며 상당 기간 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
- 필라델피아 연은의 하커 총재는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발언. 다만 9월 FOMC에서 0.5%p 금리인상에 나선다고 해도, 그러한 결정은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라고 첨언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 역시 현재 2.25~2.5%의 연방기금금리 수준은 경제활동을 늦추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 만일 9월 FOMC 전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다면 0.75%p 인상이 타당하다고 부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4분기 성장률(수정치), 소비지출 상향 조정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 완화

- 해당 분기의 전기비연율 성장률은 -0.6%로 1/4분기(-1.6%) 및 속보치(-0.9%) 대비 개선. 특히 소비지출과 민간 재고투자 등이 당초 속보치 결과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 이는 최근의 양호한 노동시장 및 소매매출에 부합

■ 미국 상무부, 기업의 2/4분기 이익률은 1950년 이후 최대

- 2/4분기 기업의 이익률은 15.5%로 전기(14%) 대비 상승. 해당 결과는 기업이 큰 어려움 없이 원재료 비용 증가분 이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있음을 시사. 한편 이익률 증가는 임금인상 역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의미

■ 미국과 중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미국 회계감독 합의에 근접

-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증권당국은 자국 기업과 이들의 회계법인이 관련 감사보고서와 정보를 본토에서 홍콩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용인할 방침. 이후 미국 회계감독기구 감사관들이 홍콩에서 중국 기업의 자료를 감사할 계획

■ ECB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가중

- 다수의 통화위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에 불안감을 피력.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큰 폭의 금리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평가. 일부 위원들은 7월 회의에서 보다 작은 폭의 금리인상을 지지
-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기후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에, 통화정책 결정 시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 또한 가뭄, 홍수 등의 다양한 기후 재앙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고 설명

■ UBS, 유로존은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한 상태일 가능성

- 유로존 성장률은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0.1%, -0.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기술적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평가.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당초 기대보다 부진할 수 있다고 분석

■ 중국 정부,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 제공을 확대할 방침

-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리 중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인한 경기둔화 등으로 7월 청년층 실업률이 19.9%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 또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 일본은행 통화위원, 통화정책 완화 유지 및 비둘기파적 지침 제시할 필요

- 토요아키 나카무라 위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이 가능할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달러화 대비 엔화가 약세이지만, 이는 통화정책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2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잭슨 홀 미팅(연준 파월 의장 연설), 8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 의장, 잭슨 홀 미팅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 - Financial Times

(Jay Powell faces tough crowd in Jackson Hole after inflation errors)

- 연준은 그 동안 고물가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물가안정 관련 신뢰가 훼손. 이에 최근에는 적극적인 금리인상을 단행.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하강 신호 속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연준에게 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소지
- 실제로 연준 인사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무조적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경기침체를 피할 것이라는 입장 견지. Sahm Consultnig의 Claudia Sham은 연준이 통화긴축으로 어떤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흥국 채권 매입, 연준의 정책 기조 전환 기대 등을 시사 - 블룸버그

(Global Bond Inflows to Emerging Asia Signal Shift in Outlook)

-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아시아 신흥국 국채 매입이 증가. 8월 인도네시아 채권시장에서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자본의 순유입 발생. 이는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덜 매파적이라는 해석 및 경기둔화에 따른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 기대 때문
-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흥국 국채 보유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낮다는 것도 변화의 원인 중 하나. 다만 향후 자본유입 지속 관련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신호 여부가 될 전망

■ 독일, 재정 건전성 유지보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출 확대가 필요 - Financial Times

(Germany needs its very own Marshall Plan)

■ 미국 증시, 잭슨홀 미팅보다 향후 경제지표 방향이 관건 - 블룸버그

(Don't Read This! You've Read Too Much on Jackson Hole.)

■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에 따라 상이 - WSJ

(Nobody Knows How Interest Rates Affect Inflatio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